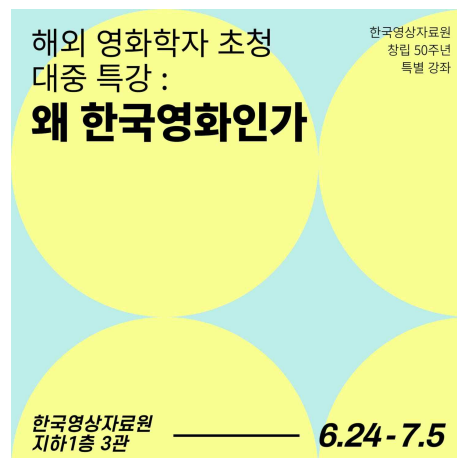


보도시점	보도자료 배포 후 즉시		
담당부서	전략기획팀	담당자	여은정
이메일	ej_yeo@koreafilm.or.kr	연락처	02-3153-2064

보 도 자 료

미국은 왜 한국영화에 주목하는가? 해외 영화학자 6인 초청 특강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해외 영화학자 초청 대중 특강 : 왜 한국영화인가' 한국영상자료원 창립 50주년 특별 강좌 진행
 UC 버클리대학교 안진수 교수 등 6인의 해외 영화학자 초청



▲ '해외 영화학자 초청 대중 특강: 왜 한국영화인가' 홍보물

한국영상자료원(원장 김홍준, 이하 '영상자료원')은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해외 영화학자 초청 대중 특강: 왜 한국영화인가'를 진행한다. 영상자료원 창립 50주년(1974년 설립)을 맞아 기획된 이번 특강은 오늘날 미주 관객 및 영화학계가 한국영화를 어떤 온도로 수용하고 있는지 가늠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미주에서 활동 중인 6인의 영화학자를 초청해 한국영화를 연구하게 된 각자의 배경과 현재의 주요 연구 테마를 공유한다. 정치경제 체제 변화에 따른 한국 영화의 표현력 확장을 소개하는 세션부터, 미국의 영화 애호가들이 한국 영화를 수용해 온 양상에 이르기까지 한국영화를 둘러싼 다양한 연구를 소개한다.

□ 해외에서 연구하는 한국영화 연구자들의 시선

시리즈 특강의 포문을 여는 (1) 정승훈 교수(캘리포니아 주립대 롱비치)는 '글로벌 코리안 시네마,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글로벌 체제의 정치윤리적 변화가 한국 영화에 어떻게 녹아들었고 또 어떤 국지적 특성과 보편적 모순을 촉발했는지 다룰 예정이다. (2) 장혜승 교수(콜로라도 주립대)는 영화 아카이브의 중요성 및 영상자료원 아카이빙 자료

를 토대로 한 한국 영화 검열사 연구를, (3) 김규현 교수(UC 데이비스대)는 박찬욱 감독 작품을 통해 살펴보는 미주 관객의 한국영화 수용 양상을 공유한다. 이와 더불어 (4) 스티브 최 교수(샌프란시스코 주립대)는 한국 영화를 영문으로 연구하는 작업의 현황 및 한국영화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의 가능성을 소개할 예정이며, (5) 안진수 교수(UC 버클리대)는 권위주의 체제를 분기점으로 한국영화의 연설 행위가 어떻게 확장된 표현력을 갖게 되었는지 안내한다. (6) 한국, 아시아의 퀴어 영화를 연구 소재로 다루는 김응산 교수(워싱턴대학교)는 90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아시아의 퀴어 영화가 어떻게 독특한 시간성을 바탕으로 미학적, 정치적 실험을 거듭해 왔는지 살펴본다.

이번 특강은 화차별로 신청 가능하며 한국영상자료원 홈페이지(https://www.koreafilm.or.kr/museum/educations/EI_00348?page=¶mYear=&keyWord=&educationStatusCd=&educationTargetCd=)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자료] 프로그램 개요

<해외 영화학자 초청 대중 특강: 왜 한국영화인가>

- 공동기획: 한국영상자료원, UC 버클리대 안진수 교수
- 일 장: 2024년 6월 24일(월) ~ 7월 5일(금), 매주 월수금, 19~21시
- 장 소: 한국영상자료원 지하1층 교육실 (시너마테크KOFA 3관)
- 대 상: 영화 관심 일반 대중
- 참가비 및 규모: 화차당 5천원, 최대 40인
- 신 창: 한국영상자료원 홈페이지
- 구 성
- (1) 공통 주제: 한국영화를 연구하게 된 배경, 해외 관객의 한국영화 수용 온도
- (2) 개별 주제

일정	개별 주제	발 표
6.24.(월)	글로벌 코리안 시네마, 어떻게 볼 것인가?	정승훈 (캘리포니아 주립대 롱비치 영화과 조교수)
6.26.(수)	할리우드 키드의 생애 : 어느 한국 영화학자 성장기와 아카이브의 발견	정혜승 (콜로라도 주립대 커뮤니케이션과 교수)
6.28.(금)	'한국영화와 '글로벌 코리안 시네마': 장르적 '팬덤'과 '한류' 담론의 관계성에 관한 한 고찰—박찬욱 감독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김규현 (UC 데이비스대 역사학과 일본-한국 전공 부교수)
7.1.(월)	한국 영화와 영화 영문 연구	스티브 최 (샌프란시스코 주립대 영화비평과 부교수)
7.3.(수)	한국 영화의 재현 변화 양상: 연설 행위의 표현력과 신체의 의미에 주목하며	안진수 (UC 버클리대 동아시아 언어와 문화학과 부교수)
7.5.(금)	재현의 규범화, 그리고 한국 및 아시아 퀴어 영화의 실험과 도전	김응산 (워싱턴대학교 아시아언어문학과 조교수)